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6

##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sup>2</sup>	GDP	5,806 억 달러 (2011년)
인구	27.9백만 명 (2011년)	1인당 GDP	20,033 달러 (2011년)
정치체제	왕정 (정교일치)	통화단위	Saudi Riyal (SR)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달러 페그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9.1%에 달하는 2,645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3%에 해당하는 8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에너지 부국임.
-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 있으나, 2003년 이후 고유가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정교일치의 국왕 중심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의 발상지로서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이슬람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2005년 8월에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다변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점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1월부터 중동 민주화 혁명이 튀니지, 이집트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선진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경제적 유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e</sup>
경제성장률	2.0	4.2	0.1	4.1	7.0
재정수지 / GDP	12.2	32.5	-6.1	6.7	14.3
소비자물가상승률	4.1	9.9	5.1	5.3	5.4

자료: IMF.

#### □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 회복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최대의 원유 부존국\*으로서, 경제는 국제유가의 등락과 원유 생산량의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0년 기준 2,645억 배럴으로 전세계의 19.1%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는 2003~08년 기간에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2월에 배럴당 평균 43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고 산유량도 감소하여 성장률이 0.1%에 그쳤음.

- 2010년부터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산유량도 증가\*하며 경제가 활기를 되찾았고, 2011년에는 유가상승, 서비스부문 성장, 정유·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힘입어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원유생산량 (백만 b/d) : 8.8(2007) → 9.2(2008) → 8.4(2009) → 8.6(2010) → 9.7(2011)

##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까지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생필품 가격 안정, 외국인 근로자 대거 유입을 통한 임금 인하 등에 힘입어 연 2~4%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8년에는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임대료 급등,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9%로 급등하였으나, 2009년이래 세계 경기의 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연 5%대로 다시 하락하였음.
- 2011년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과 비석유제품의 가격 상승, 주택 임대료의 상승 및 대규모 재정지출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5.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 흑자규모 확대 전망

-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꾸준히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2008년에는 원유 증산과 국제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흑자 규모가 GDP 대비 32.5%까지 대폭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6.7%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회복하였고, 2011년에는 공무원 급여의 인상, 교육·보건부문의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4%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과도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5%,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가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의 경제 중심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말 기준 세계 확인매장량의 19.1%인 2,645억 배럴의 원유(세계 1위)와 4.3%인 283조 ft<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5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부국이며,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와 2,79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동의 경제 중심국임.
- 원유는 대부분 동부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대표적 유전은 세계 최대 규모인 가와르(Ghawar, 700억 배럴) 유전과 세계 최대 해상유전인 사파니아(Safaniyah, 190억 배럴) 유전을 비롯하여 압카이크 (Abqaiq) 유전, 베리(Berri) 유전임.
- 금, 구리, 인광석, 보크사이트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 다. 정책성과

#### □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의 탈석유화 도모

- 경제신도시 개발, 석유화학산업 육성, 국영광업공사(MAADEN) 중심의 광업개발, 기타 제조업 및 관광\*의 5대 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및 교육 프로그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기간에 메카(Mecca)를 방문하는 무슬림 수가 매년 3백만 명에 달하고, 관광수입은 GDP의 1.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호텔, 교통(철도, 공항, 도로 등) 등의 인프라 확충사업을 진행 중임.

##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 압둘라 국왕은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총 270억 달러 규모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KAEC) 개발을 들 수 있으며, 중북부 지방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 (Prince Abdul Aziz Ibn Musaed Economic City: PABMEC) 개발 프로젝트 (총 80억 달러), 에너지 및 노동력 기반산업 중심의 지산경제도시 (Jizan Economic City: JEC) 개발 프로젝트 (총 300억 달러), IT·지식기반 도시인 메디나 경제도시 (Medinah Knowledge Economic City: MKEC) 건설 프로젝트 (총 70억 달러) 등이 진행 중임.
- 2003년 이래의 고유가에 힘입어 정유·석유화학, 전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가 크게 늘어났음.
  - 2004년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2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 □ 민영화 정책 적극 추진

- 압둘라 국왕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 중임.
  - 주요 성과로는 ① 2002년 사우디전력공사(SEC)의 민영화, ② 2002년 사우디텔레콤(STC)의 증권시장 상장, ③ 2006년 사우디 국영광업공사(MAADEN) 지분 매각, ④ 2010년 사우디항공 (Saudi Arabian Airlines) 민영화를 들 수 있음.

### 3. 대외거래

#### □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흑자기조임. 흑자 규모는 고유가에 힘입어 2003년 594억 달러에서 2008년 2,120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2009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흑자 1,052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2011년에는 2,402억 달러로 예전 수준을 회복함.
-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9년에 대폭 축소된바 있으나, 이후 2010년 14.9%, 2011년 24.4%로 회복되고 있음.

####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 유입과 2005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FDI 유치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에 5,23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 규모는 외자도입을 동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2011년 말 기준 GDP 대비 18%대 수준으로 비교적 크지 않으며 D.S.R.도 2% 대를 유지하고 있어, 외채상환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sup>e</sup>
경 상 수 지	93,380	132,314	20,955	66,751	114,400
경 상 수 지 / G D P	24.3	27.8	5.6	14.9	20.5
상 품 수 지	150,716	212,026	105,229	149,506	229,564
수 출	233,311	313,480	192,307	251,149	334,258
수 입	82,595	101,454	87,078	97,432	104,694
외 환 보 유 액	305,709	442,664	410,109	445,137	517,800
총 외 채 잔 액	70,521	79,003	72,398	80,951	100,217
총 외 채 잔 액 / G D P	18.3	16.6	19.4	18.6	18.0
D S R	2.1	1.8	2.7	2.4	2.2

자료: IMF, EIU.

### III.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압둘라 국왕의 안정적 국정 운영 및 점진적 개혁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Shariah)를 국법으로 하는 정교일치의 절대군주국으로, 국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며, 종교 수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
- 의회나 정당은 없으며, 국왕이 임명한 15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음.
- 1932년 압둘 아지즈(Abdel-Aziz bin Abdel-Rahman al-Saud) 초대 국왕 이후 알 사우드 가(Al Saud family)가 통치하고 있음.
- 현 압둘라 국왕은 2005년 8월에 제6대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총리를 겸임하고 있음. 각 장관, 주지사 (13개 주), 군부 및 경찰을 포함한 요직을 알 사우드 가문의 왕자들이 장악하고 있음.



- 압둘라 국왕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고질적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경제 육성, 경제 인프라 건설, 교육체계 개편 등 점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국왕승계절차가 일부 개혁되었으나 후계구도의 불확실성 지속**

- 압둘라 국왕은 2006년 10월에 국왕 및 왕세제의 유고 시에 왕실위원회 (Allegiance Institution)에서 국왕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왕승계법안을 제정하였음. 이는 사우디 지배가 내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왕권 승계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 술탄 왕세제가 지난 10월 지병으로 사망하며 이어 나예프 (Nayef bin Abdel-Aziz al-Saud)왕자가 왕세제가 되었으나, 현재의 압둘라 국왕과 함께 80대 후반의 고령이어서 향후 후계구도에 불확실성 지속.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보유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발상지로서 원칙을 강조하는 수니파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여,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이슬람적이고, 금욕적이며,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음.

**□ 부의 왕족일가 편중에 대한 불만 증가**

-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족의 부와 권력 독점을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 전복을 노리는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정도는 아님. 정부는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높은 실업률

-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11% 수준이나, 실제로는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에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75%로 높이는 등 산업인력 자국화 (Saudization)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5%를 상회하는데다 민간 기업들이 임금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을 선호하고 있어 실업률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교과 과정 중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박사학위자의 60% 이상이 이슬람 종교학 박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사회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형편임.

## □ 소수 시아파 차별 문제 상존

- 국민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는 시아파는 사우디 동부의 주요 유전지대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고, 정치·외교 분야의 공직 참여, 여행, 거주 등에 제한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들 일부가 왕정 전복을 노리는 알-카에다 등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 정부는 시아파 국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특히 1979년 이란 회교혁명 후에 시아파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도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

## □ 대규모 반정부 시위사태 발생 가능성은 희박

- 중동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 시아파 거주지와 홍수 피해를 입은 제다(Jeddah)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정교일치의 국왕중심제 하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항의는 이슬람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국왕 및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과 신뢰도가 높음.

- 또한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튀니지, 이집트와는 달리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경제적 유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정부는 중동 민주화 혁명이 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2월과 3월에 주택공급, 공무원 임금인상, 실업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강화 등을 위해 약 1,300억 달러(2010년 GDP의 30%)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3. 국제관계

#### □ 중동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자국은 물론이고 원유수출국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

#### □ 긴밀한 대미 관계 유지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임. 미국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등 외부의 위협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는다는 면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9.11 테러에 사우디 국민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있었으나, 이후 이라크 전쟁 수행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정부에 전적으로 협력하였고 왕정 전복을 노린 2003년의 리야드 테러사건 이후 극단 이슬람 저항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면서, 양국은 긴밀한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19명 중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인으로 밝혀짐.

-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가 깊은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이란과의 갈등 심화

-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이후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된 이래, 이란의 개혁파 하타미(Mohammed Khatami)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는 관계가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강경보수파인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수니파가 국민 대다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이 중동에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바레인 시위사태\* 진압을 위해 2011년 3월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자, 이란 정부는 바레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심화되었음.
- \* 바레인 시위사태는 집권층인 소수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반발로 발생.

## □ GCC 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걸프협력회의)\* 회원국으로서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이며, 세계 원유 매장량의 36%, 천연가스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GCC는 2003년부터 공동관세제도를 시행하여 역내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역외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5%의 공통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9년 12월 GCC 정상회의가 연합군의 창설에 합의하고 단일통화제 출범을 위한 통화협정을 발표시켰으나 단일통화제 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 UAE는 2009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향후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채택된 데 불만을 품고 통화동맹에서 탈퇴하였고, 오만은 단일 통화 체제의 가입을 위한 자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음.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단일통화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외채규모의 약 5배에 달하는 5,273억 달러 수준이며, D.S.R도 2% 대에 불과하여 외채 상환능력이 충분하며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음.

### 2. 국제시장평가

#### □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급, OECD 2등급 유지

- Moody's는 2010년 2월에 양호한 재정상태, 경상수지 흑자 지속,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주된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1에서 Aa3로 1 단계 상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3월과 10월 재평가 시에도 Aa3를 유지하였음.
- S&P도 사우디아라비아 신용등급은 2007년 7월에 A+에서 AA-로 1단계 상향조정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Fitch 등급은 2008년 7월에 A+에서 AA-로 상향조정된 후, 2011년 4월 재평가 시에도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였음.
- OECD는 2005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2. 2.)	B1 (2011. 7.)
OECD	2등급 (2011. 3.)	2등급 (2010. 4.)
S&P	AA- (2007. 7.)	A+ (2006. 4.)
Moody's	Aa3 (2011.10.)	Aa3 (2011. 3.)
Fitch	AA- (2011. 4.)	AA- (2010. 1.)

- 한편, 세계 금융위기로 큰 영향을 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시장도 안정을 회복하였음.
- 주식시장에서는 2008년 8월에 8,400 수준이던 주가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이탈로 2009년 3월에는 4,130까지 50% 이상 폭락하였음.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가지수도 오름세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1월말에는 6,800선을 기록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5년 만기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은 2009년 2월에 335bps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회복 조짐과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1월말 132bps를 기록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단기 전액 인수 가능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0월 16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력협정(1975),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1984), 항공운수·소득면제협정(1990), 투자협력협정(2002), 조세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협약(2007)

#### □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

-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으로, 원유 총수입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우리나라는 총 9억 2,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는데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2억 9,100만 달러로 31.3%를, GCC 국가 전체는 6억 7,800만 배럴로 73.1%를 각각 차지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약 439억 달러에 달함. 수출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을 중심으로 약 69억 달러, 수입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약 37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사우디아라비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 품목
수출	3,857	4,557	6,965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류 원유, 석유화학제품
수입	19,737	26,820	36,975	
합계	23,594	31,377	43,94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국 중 제1위 국가

- 2011년 말 누계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액은 단일 국가로는 최고 금액인 1,66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5,913억 달러의 28.1%를 차지하였음.
- 2010년부터 국영석유회사 ARAMCO의 석유화학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5개년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발 사업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우디 정부는 2011년 6월에 향후 20년에 걸친 3,0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16기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11월 우리나라와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참여가 기대됨.
  - 사우디 정부는 연간 7~8%씩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원전 건설을 계획 중으로 원전 건설에 따라 전력생산의 20%를 원자력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아라비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1년 9월 말까지 신규법인 수 148건, 총 투자금액 2억 7,540만 달러에 불과함. 업종별로는 제조업(1억 1,825만 달러)과 건설업(1억 4,737만 달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V. 종합 의견

- 세계 1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부국 사우디아라비아는 2003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재정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거시경제 전반에서 호조세를 보였음.
- 2009년에는 유가하락과 원유생산량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지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이래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에는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왕위를 계승한 압둘라 국왕이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장 및 실업문제 해소를 목표로 산업다각화, 민간부문 경제 육성, 대규모 경제 인프라 건설 추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국민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반미감정과 정부의 친미 정책 간의 괴리, 높은 실업률과 왕족 일가로의 극심한 부의 편중 등을 비판하는 청년계층의 확대, 소외받는 소수 시아파 국민의 불만 등은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우디 정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조사역 유나영 (☎02-3779-5724)  
E-mail: [smilenayoung@koreaexim.go.kr](mailto:smilenayoung@koreaexim.go.kr)